

“중소·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위해 관광청 신설” 제안

중기중앙회 관광·콘텐츠 간담회

‘관광 컨트롤타워’ 기관 없어
고부가가치 콘텐츠·신시장 등
획기적인 관광 진흥정책 요구

중소기업계가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광청’을 만들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관광산업이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뛰어나고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2016년 당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은 1700만 명을 넘어서 바 있다. 관광 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세계 19위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콘텐츠 부족과 높은 비용, 국내 여행 매력 저하 등의 이유로 관광수지 적자폭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10년전부터 관광청을 신설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광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도 한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도종환 장관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을 초청해 관광·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간담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 이창의 콘텐츠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관광산업 비중이 해외에 비해 낮은 만큼 육성 결과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광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획기적 규제 개선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관광 산업의 취업유발계수(2014년)는 18.9로서 비즈업(17.3)이나 제조업(8.8)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2017년)은 우리나라가 5.1%로 스페인(14.4%), 이탈리아(11.3%), 영국(10.9%), 독일(10.8%), 일본(7.5%) 등에 비해 눈에 띄게 낮다. 전체고용 대비 관광산업 비중(2017년)도 한국은 5.9%에 그치고 있다. 반면 스페인(14.6%), 독일(14%), 이탈리아

〈관광수지 현황〉

구분	'12	'13	'14	'15	'16	'17 ^p	'18.5월 ^p
관광수입	13,357 (8.2)	14,525 (8.7)	17,712 (21.9)	15,092 (▲14.8)	17,200 (14.0)	13,324 (▲22.5)	6,306 (14.3)
관광지출	16,495 (6.2)	17,341 (5.1)	19,470 (12.3)	21,528 (10.6)	23,689 (10.0)	27,073 (14.3)	12,161 (14.9)
관광수지	▲3,136	▲2,816	▲1,758	▲6,436	▲6,489	▲13,749	▲5,855

(-)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p는 잠정치를 의미.

단위: 백만 달러·%

/자료=한국은행

(12.8%), 영국(10.9%), 일본(6.8%) 등은 우리보다 높다.

관광수지(관광수입-관광수출) 적자폭은 2013년, 2014년 당시 각각 -28억1600만 달러, -17억5800만 달러 수준이던 것이 2016년엔 -64억8900만 달러로 늘더니 지난해엔 -137억4900만 달러까지 급증했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육성 여부에 따라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고 연관 산업에 긍정적 파급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관광경쟁력 순위가 세계 4위인 일본은 2008년부터 관광 청을 만들어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관광청을 신설해

신시장 진출,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육성 등 강력한 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있을 정치권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관광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관광청 건의에 대해 도종환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관광을 육성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종리 주재의 국가 관광 전략 회의를 만든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문체부만 갖고는 안된다. 국회에서 (관광청 신설 관련) 법을 만들거나 (필요) 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중기중앙회-대한민국명장회, 中企 인식개선 MOU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명장회와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기술·기능인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전하는 ▲(가칭)명장 인터뷰 시리즈 연재 ▲중기중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영웅 어워즈’ 선정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명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련기술 전수 지원 ▲중소기업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협력방안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과 대한민국명장회 김대인 회장(왼쪽 네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소상공인엔 사활 걸린 문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저임금 정책 재검토 요청일 뿐
정부 불통시 2차·3차 집회 열 것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정책 필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저임금을 놓고 집회를 한 것은 정부를 전복시키자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형편을 살펴보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게 아쉽다. 소득주도성장의 가치가 성공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랄 뿐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5일 기자들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당일 광화문엔 3만명 가량의 소상공인들이 모였다. 그만큼 올해 16.4%, 내년 10.9% 등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은 매달 월급을 줄어야하는 이들 소상공인에겐 사활이 걸린 일이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압박과 방해가 이어지며 연합회를 이끄는 최 회장은 마음 고생이 누구보다도 컸다. 게다가 마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해 소상공인 영역이 산업센터로서 독립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기 보단 자주적인 실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독자적인 산업영역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 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책적 이슈가 생기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 나갈 생각이다.

특히 정부가 불통을 계속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방통행을 이어간다면 제2, 제3의 집회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 회장은 “정치권은 소상공인 이슈를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정치권은 온전하게 민생법안 통과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민생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로 딜해서 통과시킬 정도로 보잘 것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 촉구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 기본권 보장 ▲카드수수료 협상력 제고 등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에 대한 대통령 선언 ▲대통령 직속에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승호 기자

올리브영, 면역력 증진 상품 매출 ‘껑충’

일교차 등 환절기 대비 요인

선선해진 가을 날씨에 환절기를 대비하는 면역력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헬쓰앤팩티(H&B) 스토어 올리브영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 매출은 20% 성장한 반면, 유산균 등 면역력 증진에 좋은 환절기 대비 상품의 매출은 전월 동기간(7월 25일~8월 4일) 대비 약 56%로 신장했다고 5일 밝혔다.

가장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은 활성 산소를 억제시켜주는 프로폴리스, 아연 등 항산화 제품으로 집계됐다. 이 품목은 최근 열흘 간의 매출이 무려 120%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인 전국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큰 일교차 및 외부 환경 변화에 건강을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에는 항산화, 면역 케어 상품 이후대가 간편한 스틱포 티입이나 평소에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젤리 형태로



올리브영 매장 헬스케어 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

/CJ올리브네트웍스

도 출시돼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이 그간 환절기 대표 상품으로 꼽히던 유산균이나 비타민보다 월등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유산균의 매출은 약 35% 증가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주자인 비타민은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환절기에 피부 건강을 돋는 상품의 매출도 증가했다. CJ제일제당의 대표 유산균 제품 중 하나인 ‘BYO 피부생유산균 CJL P133’은 최근 올리브영에서 약 25%의 매출 신장률을 나타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창업지원센터 ‘마루180’ 입주 스타트업 모집

아산나눔재단 40여 가지 혜택 제공

아산나눔재단이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의 2018년 하반기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으로 직원 수 최소 3인 이상 최대 16인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단, 사행 및 유

hood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및 복지증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홍보행사 주최 및 해외 프로그램 참여 시에는 실비 지원도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최종 합격 기업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10월 22일 발표된다. 지원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마루18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